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19>

원각경의 수행방편

<금강경>이나 <천수경>같은 경전에 비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예로부터 수행인들에게는 필수 과목이 될 만큼 불교 수행의 요체를 살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경전이 <원각경>입니다. 본래의 제목이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이라 불리는 이 경은 열두 보살이 차례로 등장하여 부처님과의 문답을 통해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크나큰 깨달음 즉 대원각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수보살상으로 문수보살은 부처님께 불도 성취는 무엇으로 가능했는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여래의

같다고 여기고 떠나는 공부인데 허깨비를 떠나고 떠났다는 것마저 떠나고 또 다시 떠났다는 것마저도 계속해서 떠나 더 이상 떠날 게 없어야 비로소 원각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각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안보살상으로 모든 허깨비를 여의려면 어떻게 수행하고 머물고 어떤 방편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각을 구하려면 계율을 굳게 지니고 고요한 방에 앉아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짓는데 몸은 사대의 조화로 이루어져 나라 할만한 실체가 없고 마음도 육신의 인연으로 나타난 그림자와 같이 내가 없음을 관찰해 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허깨비 같은 일체의 존재 그대로가

고요한 공간에서 '내가 없음' 관하기

법계에 두루 하고 움직인 없는 청정 원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장은 금강장보살상으로 본래 부처였던 중생에게 왜 무명이 있게 되었는가, 무명이 본래 있는 것이라면 중생을 부처라고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부처도 나중에 다시 중생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등에 대한 금강장보살의 질문에, 부처님은 우선 윤회하는 마음으로 부처의 원각을 알리고 하는 어려서움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금강의 비유를 들어 금은 본래 금이라 광석을 제련해서 생기지 않듯 중생이 본래 부처이니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치를 설명하고, 광석 속의 금이 순금으로 제련 되면 다시는 광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이치를 깨달으면 다시는 무명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계속)

■유마선원장



문답으로 맞추는 수행의 눈높이

서울 육조사 즉문즉답식 선공부 현장

질문은 현실적이었다. 또 간질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 드는 법부터, 우리 안에 깃든 불성은 죽어서도 존재하는지, 중생이 무엇인지에 이르기까지 재가자들은 그간 품었던 의심의 파리를 한꺼번에 풀어놓았다.

"친척 한 분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무상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 육신은 없어져도 불성(佛性)은 불생불멸이라 했습니다. 과연 육신만 갔습니까?" (김진조 · 69)

법문 끝나자 재가자 질문 쏟아져

"불성은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속에서 살고 죽는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얼마 전 북한산 향로봉에 등산을 갔을 때, 한 재가불자가 새벽집을 깨게 한 모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탁 치니까 불성이 죽더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불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불성이라 생각한 것(본성)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중생처럼 하지 말고, 부처의 자리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화두참구입니다." (현웅 스님)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육조사(선원장 현웅) 일요일법회 현장. 화두 '이렇듯'을 주제로 한 현웅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재가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선사와 재가자간 오가는 문답에 거침이 없다. 즉문즉답이다. 생각이 끼어들 틈도 없이 문답이 이어졌다.

"자성에는 중생도 부처도 없다"는 스님의 말에 한 재가자가 의문을 던졌다.

"의상 스님의 <법성계>에 '불수자성수연성(不守自性緣成: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기법

에 따라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자성을 강조하셨습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자성과 법성계의 '지키지 않는 자성'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손진국 · 40)

"자성에는 지키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중생의 차원에서 보니까 중생과 자성이 따로 있어 서로 지키고 말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의 생각 자체는 뿌리가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지키고 말고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질문하는 불자님 그 자체가 '자성불'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까. 자성의 '체(體)'는 그렇게 확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성계에서 말하는 부분은 자성의 '작용(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불이(不二)이며 원융한 법성이지만, 작용할 때는 연기법에 따른다는 말입니다. 불자님 속에 자성불이 있어서, 배고픈 것을 알게 하고 밥 먹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웅 스님)

모르면 묻고, 배운 것은 몸으로 체험

현웅 스님은 6개월 전, 이곳에 육조사를 개원하면서부터 '좌선-법문-문답'의 방식으로 재가불자들의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평일에 좌선을 하고 선공부와 관련된 문답을 수시로 주고받는다. 질문에는 제한이 없다.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기초수행은 물론, 화두를 들고 체험할 경계도 점검받는다.

그럼, 현웅 스님은 왜 문답식 수행방법으로 재가자들을 지도하고 있을까? 스님은 문답공부가 따로 '재가자들이 선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 준다고 말했다. 문답식 공부가 쓸데없는 생각을 고치고, 올바른



김홍근 성천문화재단 연구실장이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하나까"라고 묻자, 현웅 스님이 "불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화두를 잘 들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또 문답을 통해 '살아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스승과 제자의 교감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알기만 하려는 마음의 독 없애준다

"재가자들은 '불교가 왜 필요한지' 알고 묻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치열하고 직접적입니다. 때문에 문답식 공부는 불교를 알기만 하려는 '마음의 독'을 없애주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불성을 믿고, 발심하도록 해주는 이런 과정은 재가자의 마음흐름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고, 스스로 정확히 진단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육조사의 문답식 공부는 재가자들이 능동적인 공부를 하도록 변화를 불러왔다. 이석순 씨(51·해란)는 "살아 있는 선, 살아 있는 법문을 듣게 되면서 번뇌·망상과 화가 현격히 줄고 남의 의심하는 버릇도 없어졌다"며 "스님과 문답에서 공부의 필립어를 점검 받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신도들의 공부방식을 바꿔 놓았다. 그간 일방적으로 법문만 들었던 소극적인 공부행태가 적극적으로 전환됐다. 모르면 스님에게 묻고, 배운 것은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게 된 것이다. 특히 문답식 수행공부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내 속에 있는 부처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느끼라는 현웅 스님의 법문은 재가자들에게 불교기초교리공부는 물론, 선어록, 참선참구 등의 실질을 이끌었다.



육조사 재가불자들이 현웅 스님과의 '문답'에 앞서 마음을 가려왔고 있다.

육조사에서 선공부를 하고 있는 김홍근 성천문화재단 연구실장(47)은 "그간 옛날 선사들의 공부방법으로 선을 배웠을 때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며 "현대적 감각으로 재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스님의 법문을 접하면서 이제는 공부 길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육조사는 매주 일요일(오전 10시30분) 정기법회에서 <육조단경> <선문활요> <서장> 등의 강의 이외에도, 매일 새벽(4시), 저녁(6시30분)에 문답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좌선에 도움되는 '경락을 푸는 요가체조'를 매일 30분씩 지도하고 있다. (02)766-5291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중앙신도회,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수행논강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재가불자 하안거 <백일법문> 논강'에 이어 '재가불자 동안거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수행논강'을 마련했다. 성철 스님의 <돈오입도요문론 강설>을 교재로 11월 27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수행논강은 설수 스님(법인정사

주지)이 강사를, 혜국 스님(석창사 선원장)이 증명법사를 맡았다.

11월 27일 봉은사 법당에서 열리는 입제식에서 혜국 스님이 증명법사 법문을 하고 12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본격적인 논강에 들어간다. 2006년

2월 21일에는 혜국 스님이 마무리 법문 및 문답의 시간을 가지며 2월 26·27일 열리는 종말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수행논강을 회향한다.

중앙신도회는 이번 수행논강에 김지선 강원도지사,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이계진 의원 또는 권선택 의원 등 사회활동중 증추적으로 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초청해 논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02)733-7277

김지연 기자

세상에 이런 일이....

천일선원에서는 놀랍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다가 곳이나 천도재등 좋다는 것은 다해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 효과를 못본 환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접는 심정으로 양보살(원장님)을 만나 최치료를 받고 나서 새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양보살님을 만나면 병의원인, 빙의상태, 전생업의 실마리를 풀어서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다. 병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담을 해주고 있다.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Tel. 054)638-2224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이름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흥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양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령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마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상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 (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제34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주제: 아자! 아자! 부처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겨울불교학교를 준비하시는 사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고자 '아자! 아자! 부처님(즐거운 겨울불교학교, 신나는 법우들)'이란 주제로 '제34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포교를 위해 일선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스님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불기2548년 11월 14일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장 소:** 삼성동 봉은사
- 대 상:** 어린이·청소년법회 지도교사, 법사, 스님 및 불교레크리에이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 교과내용:**
 - ☞ 즐거운 찬불가
 - ☞ 흥겨운 몸풀기
 - ☞ 재미있는 만들기
 - ☞ 신나는 놀이
 - ☞ 흥선 꾸미기
- 참가비:** 일반 30,000원, 우대 및 회원 25,000원, 도서벽지 및 군중 20,000원
- 접 수:** 전화접수 후 온라인입금
온라인 구좌: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농협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문의 및 접수:** ☎ 02-738-7860(대), 739-4967 (본회 사무국)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